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옥외광고물 홍수 이뤄 관리 필요하다”

유인애 의원은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외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강북구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허가나 재개발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또는 상호 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광고물수량 안내 후 인·허가를 하기로 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2013년 이후 강북구에서 인·허가 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부착된 광고물들이 관련규정에 맞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

치되고 있는지에 묻고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상가건물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된 간판과 불법 간판 현황 및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



유인애 의원

다.

이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붙이거나 직접 도료를 이용해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한 마을버스는 몇 대나 되고, 불법으로 부착하고 운행 중인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불법광

고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과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포스트 3면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히 해야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이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외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 주변

에는 다양한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강북구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허가나 재개발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또는 상호 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광고물수량 안내 후 인·허가를 하기로 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2013년 이후 강북구

에서 인·허가 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부착된 광고물들이 관련규정에 맞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되고 있는지에 묻고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상가건물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된 간판과 불법 간판 현황 및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붙이거나 직접 도료를 이용해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한 마을버스는 몇 대나 되고, 불법으로 부착하고 운행 중인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과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 세워야

유인애 의원
(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가로등 기둥이나 전신주, 통신주 등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첩지류와 상가 건물마다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이 난무하고 있고, 또한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외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광고물로 흉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13년에 강북구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허가나 재개발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또는 상호 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광고물수량 안내 후 인·허가를 하기로 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



▲ 유인애 의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2013년 이후 강북구에서 인·허가 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관련규정에 맞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상가건물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된 간판과 불법간판 현황 및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 구에는 12개 마을버스 노선에 78대의 마을버스가 영업 중에 있고, 버스 차량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한 마을버스는 몇 대나 되고, 불법으로 부착하고 운행 중인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유인애 의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